

T.S.엘리엇의 난해한 매력 탐구 30년

「엘리엇全集」과 연구서 동시에 펴낸 **이창배** 교수

20세기 현대시의 거장 T.S.엘리엇(1888~1965)의 시와 詩劇들을 모아 수록한 작품집과 그의 인간적 문학적 편력을 폭넓게 조망한 연구서가 영문학자 **이창배** 교수(64·동국대 대학원장)에 의해 동시에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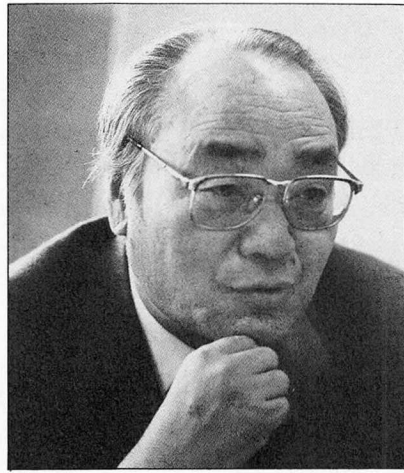
지난 30여년 동안 영미시, 특히 에이츠와 엘리엇 연구로 일관해온 이창배교수가 펴낸 「T.S.엘리엇全集-詩와 詩劇」 「T.S.엘리엇 연구-인간과 文學」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소개됐던 엘리엇의 작품과 문학세계를 체계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특히 엘리엇의 대표작 「황무지」를 비롯해 39편의 시(불어시 3편과 무의미시 몇편은 제외)와 5편의 시극이 모두 한 번역자에 의해 번역돼 한권의 책으로 묶여 나온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창배교수가 엘리엇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1950년대부터. “현대시의 새로운 사조와 경향이 엘리엇으로부터 시작될 뿐 아니라 현대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작가였기에, 영미현대시 연구자로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이교수는 설명한다. 1957년 엘리엇의 비평 16편을 번역 수록하여 「엘리엇文學論」을 펴낸 이래, 그에 관한 논문과 해설을 수없이 발표해오면서 더욱 더 이 시인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곤 했다고 이교수는 「T.S.엘리엇연구」의 책머리에 적고 있다.

엘리엇문학의 매력은 '난해성'

“엘리엇의 작품은 한마디로 난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역시 그 난해성에 있다고밖에는 대답할 수 없군요. 엘리엇의 난해함은 현대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대적 표현을 통해 현대의 소설이나 예술 전반까지도 조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엘리엇이 寡作家였다는 사실은, 그의 시와 시극을 모두 모은 분량이 한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미문학사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무게는 대단한 것이어서, 이창배교수에게 있어 엘리엇은 그의 30여년에 걸친 영미시연구가 결국에는 하나로 모이는 귀결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이교수가 이번에 펴낸 「T.S.엘리엇전집」은 전작품을 번역했다는 점 뿐만



이창배교수

아니라, 엘리엇연구에 반영생을 바쳐온 한 영문학자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완성된 가장 정확한 번역서라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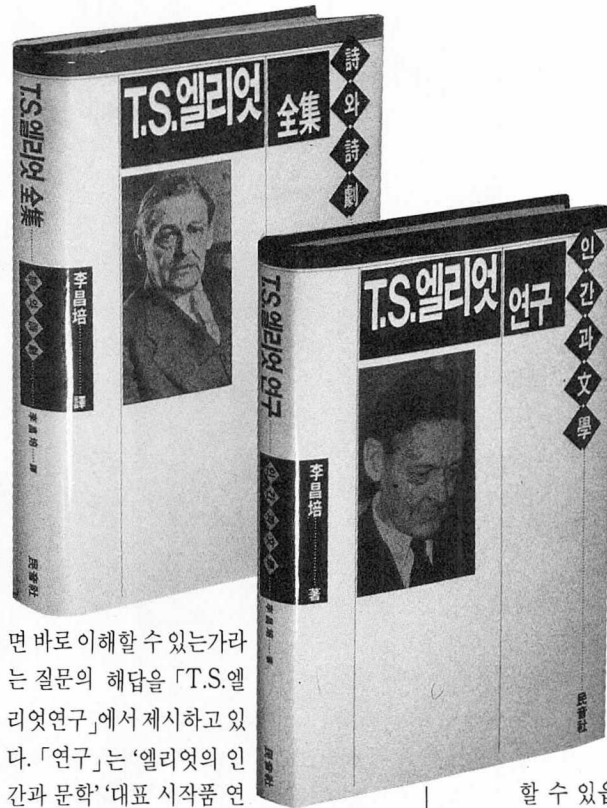
“엘리엇의 작품에는 동서고전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의 독서범위를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 번역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지요. 표현 역시 작가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비약적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의식의 흐름’기법을 구사하고 있어, 엘리엇이란 인물 자체를 정통하게 꿰뚫고 있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교수가 「전집」의 파트너로 펴낸 「연구」는, 그의 표현처럼 “백번을 읽어도 작가의 의도와 개인성을 파악하기 힘든” 엘리엇의 작품을 이해하는 길잡이 노릇을 한다.

인간과 문학 동시에 파악해야

엘리엇의 작품이 난해한 것처럼, 엘리엇이라는 인물 자체가 도통 종잡을 수 없이 난해하다는 사실은 영문학자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져 있다. 엘리엇의 절친한 동료였던 에즈라 파운드(그를 늙은 포섬(Old Possum)이란 별명으로 불렀는데, 공격을 받으면 죽은 채하고 가만히 있는 습성을 지닌 미국산 주머니쥐 포섬처럼 도대체 그 속을 모르겠다는 뜻으로 지어준 별명이었다. 이처럼 엘리엇은 자신의 생각을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를 매우 꺼렸기 때문에, 자연 그의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도 저마다 다른 시각들이 제기되어왔다.

이교수는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엘리엇의 작품세계를 과연 어떻게 하



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T.S.엘리엇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연구」는 ‘엘리엇의 인간과 문학’ ‘대표 시작품 연구’ ‘네편의 논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엘리엇의 성장과정이나 개인적인 경험 등이 그의 작품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가를 일반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교수가 ‘엘리엇의 인간과 문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각은, 지금까지 엘리엇 작품 해석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신비평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어서 흥미롭다. “지금까지 신비평은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켜 작품에 나타난 표현이나 형식, 상징 그 자체만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지요. 그러나 신비평만으로는 엘리엇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시인의 인간적인 면모, 즉 기질과 고뇌 등을 문학과 동시에 파악할 때라야만 전모를 밝혀낼 수 있어요.”

이러한 시각에 따라 이교수는 엘리엇의 장시 「황무지」 역시,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이 기보다는 ‘한 시인의 개인적 고뇌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엘리엇 자신도 “여러 비평가들이 「황무지」를 영광스럽게도 현대세계를 비평한 것으로 해석하고 사회비평의 중요한 시인양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게 있어 그 시는 단지 개인적이고 전적으로 무의미한 인생불평의 해소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닌 한편의 운문으로 된 불평시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만약 그의 시가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불만감의 문학적 표현이라면, 엘리엇 자신이 강조했던 시인의 역사적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가 독자들에게는 의문으로 남는다.

“엘리엇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시인입니다. 엘리엇의 불평이나 고뇌는 세속적인 세계를 향한 것인 동시에 이상과 영원성을 추구하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인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자연 타락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점에서 엘리엇의 개인적인 고뇌가 보편성과 아울러 역사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단에 자극제 역할 기대”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국내 독자들 사이에서 누리고 있는 대중적 인기(에 비해, 과연 그의 작품을 직접 읽어본 독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가늠하기가 힘들다. 매년 4월이 되면 「황무지」의 첫구절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정도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 사실 엘리엇의 작품이 일반독자들과 가깝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번역자와 학자들에게 있어요. 엘리엇의 작품이 난해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난해한지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하게 번역해내는 노력이 부족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펴낸 두권의 책을 계기로, 엘리엇의 작품이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좀더 대중과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국내 시인들에게도 자극제 구실을 함으로써 한국문학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구요.”

엘리엇 탄생 1백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자신의 정년을 1년 남짓 앞두고 두권의 노작을 펴내게 돼 더욱 감회가 깊다는 이창배교수는, 앞으로의 연구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여력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크게 웃는다. 그러나 엘리엇 탄생 1백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23일 창립된 ‘현대영미시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출된데다가, 5~6백년에 걸친 영미시의 전통을 총괄하는 연구서도 곧 착수할 계획이어서 이창배교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바쁘기만 하다.

—오애리 기자